

안팎에서 본 미국 싱크탱크(3)

‘여성’ · ‘소수자’ · ‘신진’ 들이 진입하기 힘든 ‘그들만의 리그’

아시아 정책 핵심(Asia Policy Point, 源)의 대표 민디 코틀러(Mindy Kotler)와의 인터뷰

글/사진 홍일표(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2007년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아시아 정책 핵심(Asia Policy Point, 源, <http://www.jiaponline.org/index.html>)의 대표 민디 코틀러(Mindy Kotler)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시아 정책 핵심은 1991년에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관련 정보들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해 오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간 캘린더는 워싱턴 디씨는 물론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본과 아시아 관련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들의 일정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주로 다루고 있는 행사 주제는, 일본, 중국, 에너지, 외교정책, 국제경제, 지적재산권, 중동, 북한, 과학기술, 안보, 남아시아, 남한, 대만, 무역, 미국정치 등이다).

수백개의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는 워싱턴 디씨의 경우 하루에만도 수십, 수백개씩의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많은 경우 개별 기관에 ‘회원등록’을 하여 이메일을 통해 행사 안내를 받게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때로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쉬운 ‘싱크탱크의 도시, 워싱턴 디씨’에서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정보 제공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행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런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원이나 기관회원 등의 형식으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다만, 필자는 시거센터 방문연구원으로써, 시거센터가 아시아 정책 핵심의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캘린더를 받아보고 있다). 민디 코틀러는, 1991년 이 단체를 창립하기 이전 아시아 문제와 관련된 ‘독립 연구자(independent researcher)’로 활동하였고, 특히 일본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전문으로 하였다. 2007년 7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당)의 ‘위안부 사죄 결의안’ 통과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지난 1월 이용수, 김군자 할머니의 미 의회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민디 코틀러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싱크탱크, 특히 워싱턴 디씨의 싱크탱크들 사이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나 소수자, 그리고 신진 인물(또는 기관)이 기존의 경쟁구도로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진입한 이후에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앞서 존 커베너(정책연구소) 므위자 문탈리(트랜스아프리카포럼), 스티븐 클레몬스(새로운미국재단) 등의 인터뷰 내용과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벌이는 ‘아이디어 마켓팅’이 결코 ‘공정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일표(이하 홍) : 코틀러 대표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곳 워싱턴 디씨에서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친 영향과 그것의 메카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문헌들을 접하고, 또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기자, 의회 보좌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미 인터뷰를 했거나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를 내려 봐 주실 수 있을런지요?

<사진 1>민디 코틀러



민디 코틀러(이하 코틀러) : 홍박사님, 저 역시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제임스 스미스가 쓴 <아이디어 브로커>(Idea Broker)라는 책은 이미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책이 미국 싱크탱크에 관한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될 듯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듯 미국의 싱크탱크는 원래의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소속 연구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사업, 이익, 돈과 같은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자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워싱턴 디씨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많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30년 동안 미국 싱크탱크들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레이건 대통령 시기부터 싱크탱크들의 정책적 영향력이 확실히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은 ‘ 좋지 않은 ’ 방식으로 말이죠. 과거에는 싱크탱크의 영향력 또한 주로 학술적인 방식이었고 그러다보니 다소 느리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과거와 달리 박사학위를 갖지 않더라도 싱크탱크 연구원이 될 수 있었고, 대학의 학문분과와는 관계 없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싱크탱크는 단순히 대학교수가 되지 못한 이들의 저장소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싱크탱크의 세계에는, 매우 폐쇄적인 ‘그들만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유명 재단과 관계가 있거나 아이비리그를 나온 남성이 중심인 세계이죠. 많은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여성이나 소수자를 자신의 주요 연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코스모스 그룹’이라는 워싱턴 디씨의 사교 모임에서는 1980년대까지 남성과 여성이 서

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미국에서 말이죠. 이와 같이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디어 브로커는 '제한된 소수'의 역할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경우 미국 싱크탱크의 이러한 속성을 비교적 빨리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 '닉슨 쇼크(Nixon Shock)'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복원 양상을 지켜 본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본 연구자들의 모임들을 키워 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싱크탱크와 재단들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1990년대까지 미국의 수많은 싱크탱크들은 일본이 제공하는 엄청난 연구비를 가지고 일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일본 연구는 주로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대학교와 같이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미국의 동부 명문대학교의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던 것이죠. 미국 재단들에 대한 일본 쪽 지원이 커지면서 이를 더 받기 위한 재단들의 경쟁도 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연구를 지원하면 더 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보수파들이 싱크탱크를 중시하게 되는 정치적 맥락과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회전문' 현상이라는 것 또한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료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회전문 현상은 실제로 싱크탱크들의 재정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가 싱크탱크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단의 조성금 지원방식은 주로, 아는 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관료로써 일했던 사람이 선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좀 더 많은 서류들을 작성할 필요가 많아졌을 따름이죠. 그런데 미국의 재단들, 특히 규모가 큰 재단들은 조성금 지원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선 지원을 비교적 쉽게 하는 반면,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싱크탱크나 연구자에게 지원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것처럼 재단들의 신중한 지원 태도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 아이디어만을 가지고서는 조성금 지원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단들에 있어 '보다 독창적인 연구 결과'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지요.

또한 회전문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발언하도록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나 정부 관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내놓는 아이디어보다는 '자기 자신(me)'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이가 많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원들 가운데는 '한 때' 관료였다가 다시 연구원으로 있고, 다시 관료가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각을 세워 날카롭게 말하기 보다는 모호한 '합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문제의 해결' 그 자체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더욱 집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입장과 다른 쪽의 정책제언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홍 : 싱크탱크 연구원들의 ‘사적 연계’가 갖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코틀러 :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싱크탱크들이 만들어 내는 ‘5분 컨퍼런스’ 같은 류의 행사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엉터리이고, 제대로 된 연구나 자료의 뒷받침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계속 되는가? 그것은 그런 기회를 통해 서로서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키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자리에서 “이라크로 군대를 더 이상 보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고함을 질러도 실은 아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기를 봐 달라”라는 것이죠. 아주 치열한 논쟁이나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싱크탱크나 개인이 재단으로부터 조성금 지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학술적’이기보다는 ‘개인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어떤 ‘친구’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세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곳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서로서로 경쟁하며 자기를 키워나가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저와 같은 중년 여성은 참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온 유명 정치가와의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신기남 의원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꽤나 중요한 정치가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관련된 그런 ‘비공식적 모임’에 초청받아서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와 있던 한국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리 와 있던 세 명의 서양인들—모두다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죠—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여기에 왜 나타난 것이지?”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초청받아 간 것은, 위안부 결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회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세 명의 ‘한국 전문가’들은 제가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실제로 이곳 디씨의 한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여는 행사에 ‘서로가 서로’를 초청해가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라는 사실을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과 그가 속한 싱크탱크로 연구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놀라운 ‘자가발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시아 연구, 특히 여성과 관련된 아시아 연구에 대해선 거의 잘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지극히 남성 중심적 국가이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디씨의 한국 전문가들 역시 여성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끈’이 한국과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들 눈에는 제가 띄지 않았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곳 사람들에게는 ‘연구의 주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 일본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제대로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의

존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싱크탱크는 학술연구자들이 흔히 얘기하듯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측면에선 저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저러하다고 믿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분명히 밝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과연 전문가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필요로 한데, 문제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 또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개발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홍 :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미 만들어진 충분한 명성이나 관계가 없다면 재단으로부터 조성금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코틀러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싱크탱크가 성공하려면 많은 돈과 그런 돈을 모아들일 수 있는 ‘자가발전’의 역량을 갖춘 인물, 유명한 정부 관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관료 출신들은 아이디어를 매우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는데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지요. 그리고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창의적인’ 사람과 별개로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것과 분명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진 2> 아시아 정책 핵심 사무실 내부 풍경



홍 : 새롭게 등장한 싱크탱크가 ‘성공’하기란 어렵다고 한다면, 최근 급속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경우는 좀 예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적 영향력, 언론 노출 빈도 등에서 가파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틀러 : 글썽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진보센터가 그리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진보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싱크탱크가 등장했다가 몇 년 못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1980년대에 등장했던 루즈벨트연구소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홍 : 미국진보센터에 대한 그런 전망은 조금은 의외군요. 저 역시 클린턴 행정부 당시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던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가 최근에는 거의 중요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긴 합니다만. 혹시 진보정책연구소의 근래 활동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코틀러 : 저 역시 그들의 최근 활동에 대해선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보정책연구소는 대표적인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였고,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싱크탱크였지요. 어쨌든 현재 미국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싱크탱크나 비영리 단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실제로 저나 저희 조직은 많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워싱턴 디씨에서 싱크탱크가 운영되기 위해선 많은 돈이 듭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 좋은 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좋은 로비를 갖춘 훌륭한 사무실을 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좋은 음식도 제공해야 하지요. 모든 인쇄물들은 ‘공짜’여야 하고, 제공되는 각종 음료와 음식들도 ‘공짜’여야만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가끔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들이 제공하는 ‘음식 소개’를 하는 글을 써 볼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케이트연구소와 같은 곳의 음식은 정말 좋지요.

홍 : 저 역시 많은 싱크탱크들을 방문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들의 음식 탐방>이란 책을 한번 써 보고 싶더군요. 예를 들어 미국기업연구소나 아스펜연구소와 같은 곳의 음식은 정말 훌륭하더군요. 그렇게 고급 음식들을 방청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름난 싱크탱크와 그렇지 않은 곳이 제공하는 음식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공짜 음식을 소재로 하여 미국 싱크탱크의 재정 구조와 후원 구조 등에 관한 책을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코틀러 : 그 책이 기획되면 저도 기고하고 싶군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싼 음식들이 공짜로 제공되기 위해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왜 그런데 돈을 많이 써야하는 것인가요? 이는 일종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싱크탱크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공짜 자료를 제작하고 공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고서와 리포트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느 누구도 그런 보고서나 뉴스레터를 돈 내고 구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곳 워싱턴 디씨의 싱크탱크 세계입니다. 얼마 전 요미우리신문사에서 <전쟁책임>이라는 책을 일본어와 영어로 각각 출판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의 대표집필자 가운데 한명인 요미우리 신문사의 기자 한명을 미국 의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이때 이 사람에게 그 책은 의원들에게 팔 생각은 하지 말고 공짜로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당연히 책을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결코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자들과 함께 하는 식사자리를 갖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식사비는 그것을 기획한 싱크탱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돈입니다.

홍 : 제가 알기로 이곳 워싱턴 디씨에만 약 300개 가량의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다고 하던데요. 조직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경쟁이 참으로 치열하겠군요.

코틀러 : 맞습니다. 특히 작고 새로운 싱크탱크가 경쟁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은 ‘종합적’이기보다는 ‘단일 이슈’에 주력하면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단들에게 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돈많은 개인들에게 ‘돈을 구걸(begging money)’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홍 : 그렇다면 아시아 정책 핵심(Asia Policy Point) 역시 그런 수많은 싱크탱크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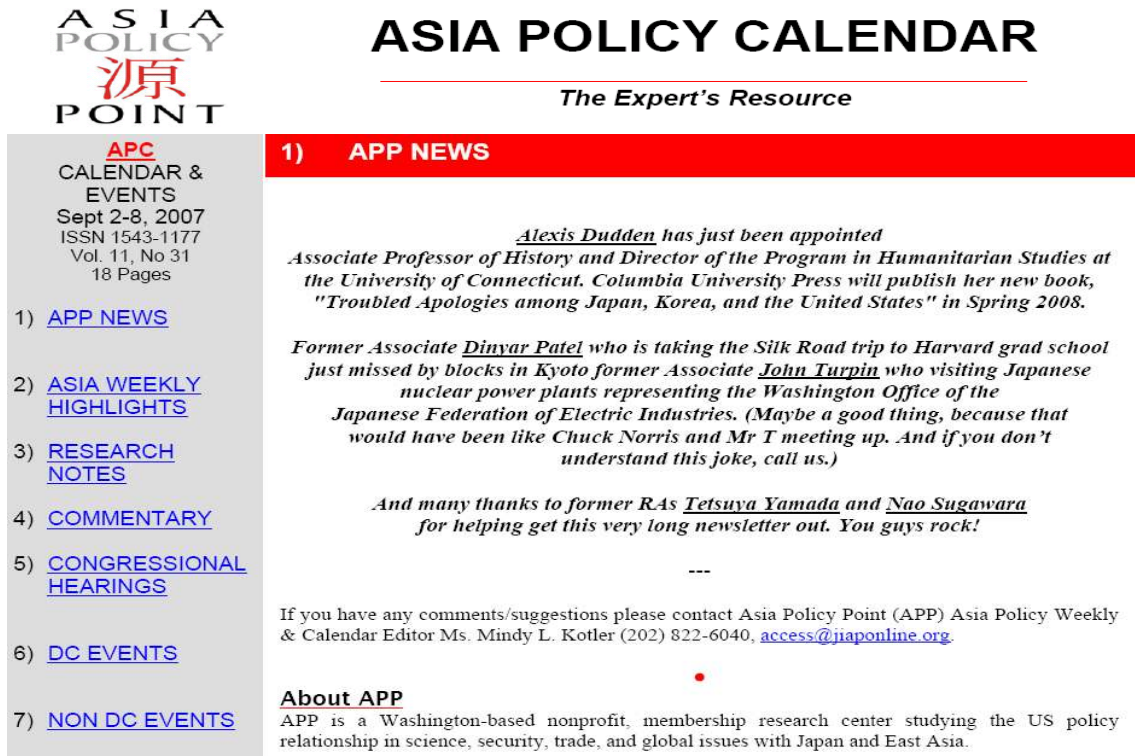
코틀러 : ‘단일 이슈’를 주로 다루고 ‘토론꺼리’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디씨의 싱크탱크들에 대해 주로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베 일본 수상이 일본 의회에서 연설한 발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일본 주요 신문들에 실린 특정 기사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미국의 연구자나 정부 관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수상이 의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몇몇 사람들 말고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일본 수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의원이나 연구자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싱크탱크 사람들(Think Tank Guys)조차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 : 흥미로운 말씀이시군요. 저는 얼마 전 브루킹스연구소에 비지팅 펠로우로 나와 있는 중국 칭화대학교 추술롱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교수께서는 현재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들 사이에 불고 있는 중국 연구 붐에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적지 않은 거품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싱크탱크 연구원들 가운데서 제대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드물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중국 연구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코틀러 : 추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볼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워싱턴 디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분야만 하더라도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국무성에서 일하고, 의회에서 일하기 위해 단지 ‘언어’를 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기관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 있는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매우 많습니다. 실상 저 역시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지만 거의 잘 못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그 언어 자체를 충분히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저평가’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이곳 워싱턴 디씨의 싱크탱크나 정관계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한 개인이 다른 언

어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해당 분야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또 그런 그들이 실제로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사진 3> 아시아 정책 캘린더 표지(Asia Policy Calendar Vol. 11, No. 31, Sep 2-8, 2007)



홍 : <워싱턴 와치>의 야마자키 편집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야마자키 편집장으로부터, 이곳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들의 아시아 연구 주제가, 일본 연구에서 중국 연구로 크게 전환해 가는 역사적 흐름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싱크탱크들의 아시아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코틀러 : 앞서 제가 일본 정부가 미국에서의 일본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것이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일본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 연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려야 한다”는 처음의 목표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고, 다만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과거처럼 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요 국책연구소나 대학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재단들은 ‘좌파’들이나 ‘유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일본 측 연구파트너들 가운데서도 주로 ‘우익’이나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미 일본대사로 나와 있는 오카자키 대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일외교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아미티지 보고서 또한 실상 오카자키 대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같이 작거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을만한 싱크탱크들은 제대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구요. 우리는 일본과 아시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까지 다 저 혼자 하는 상황이지요.

홍 : 실제로 제가 받아 보고 있는 아시아 정책 핵심의 주간 행사 캘린더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아시아 관련 행사에 대해 매우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지요? 인턴이나 연구원은 얼마나 되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코틀러 : 대부분의 정보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얻고 정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 회원등록을 해서 행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공짜로 저에게 주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희 조직에서 인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나오기도, 방학 기간 중에는 좀 더 길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난 몇 주일 동안은 모든 인턴이 없어 모든 작업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인턴들이 스스로를 이곳의 스태프로 스스로를 여기고 많은 시간 참여해주길 바라지만 돈을 줄 수 없는 처지라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근 연구자도 따로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참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각종 세미나나 행사에 참석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음식이 제공되는 행사에 제가 꼭 데리고 가니까요(웃음).

<사진 4>아시아 정책 캘린더 내용 일부(Asia Policy Calender Vol. 11, No. 31, Sep 2-8, 2007)

6) DC EVENTS

* Denotes the first time listed on the calendar.

=====
JAPAN
=====

***JAPAN AND AMERICA'S INTEREST IN NORTHEAST ASIA.** 9/6, 10:00-11:00 am, Washington, DC. Sponsor: Woodrow Wilson Center. Speaker: Thomas Shieffer, U.S. Ambassador to Japan. Location: One Woodrow Wilson Plaza, Ronald Reagan Building, 1300 Pennsylvania Ave., NW, 6th Floor, Joseph and Claire Flom Auditorium. Contact: <http://wilsoncenter.org/index.cfm?fuseaction=events.welcome>, or to Erin Mosely, Erin.Mosely@wilsoncenter.org, 691-4000, Photo ID Required to Enter.

***JAPAN'S POLITICAL SHIFT AND ITS IMPACT ON THE U.S. AND EAST ASIA.** 9/13, 10:00-11:30 am, Washington, DC. Sponsor: Carnegie Endowment. Speakers: Koji Murata, Professor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oshisha University, Kyoto; Randy Schriver, Armitage International LLC. Moderator: Minxin Pei, Senior Associate and Director, China Program, Carnegie Endowment. Location: Carnegie Endowment, 1779 Massachusetts Avenue, NW. Contact: ChinaEvents@CarnegieEndowment.org, fax 939-2377.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s/>.

***ABE VS. OZAWA: WHAT NEXT?** 9/13, Noon-2:00 pm, Washington, DC. Sponsors: Japan Chair, CSIS; Asahi Shimbun. Speaker: Hiroshi Hoshi, Senior Political Writer, *Asahi Shimbun*. Location: CSIS B1 Conference Center, 1800 K Street, NW. Contact: Eri Hirano, 775-3144, ehirano@csis.org, <http://www.csis.org/events/>. Buffet lunch served.

홍 : 그럼 아시아 정보 핵심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정부나 재단으로부터의 지원도 거의 못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틀러 : 돈 문제가 어쨌든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데 너무 많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의회에서 증언을 하더라도 교통비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엠아티(MIT)나 버클리대, 퍼듀대학, 하버드대학과 같이 멀리 있는 전문가가 이곳에 와서 증언을 할 생각을 잘 안합니다. 잘 부르지도 않구요. 결국 의회 주변 케이 스트리트(K Street)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의회 증언을 주로 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전문가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으니 전문가가 된다고나 할까요? 실제로 지난번 의회에서 증언하셨던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곳 교민들이 마련한 돈으로 미국에 오셔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구걸(still begging)’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1년에 100달러, 기관 회원은 1년 500달러를 내면 주간 캘린더와 기타 몇 가지 정보들을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홍박사가 받아보고 있는 캘린더 역시 홍박사가 속해 있는 시거센터가 저희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박사가 시거센터를 떠나게 되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브루킹스연구소도 저희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단들로부터 약간의 조성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1991년에 창립해서 1996년에 현재 사무실로 이사를 왔는데요. 외양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쥐도 나 오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안문제도 허술하고. 저는 지난 16년간 이곳에서 전업으로 일해 왔고, 이 일외에 다른 보조직업을 가져 본 적도 없습니다. 제 경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관료 경험을 가진 적도 없고, 비록 학부를 예일대학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박사학위를 갖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곳 기준으로보자면 주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분야에 있어 훌륭한 연구원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 : 그러면 아시아 관련 각종 행사를 소개하는 주간 캘린더는 처음 창립 때부터 시작된 아이템인가요?

코틀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 1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의 자료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현재의 형식으로 시작된 건 11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간 캘린더 이외에도 월간 자료와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보는 이들은 저희가 생산한 자료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따라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이에 대한 그림과 연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워싱턴 디씨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핵심’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많은 연구자들에 있어서, 어떤 행사가 더 중요한 행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이 취해 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행사라면 전문가인 자신이 초대받았을 것이고, 자신이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요한 행사가 아니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러 갈 것인가보다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곤 합니다.

홍 : 그렇군요. 그런데 싱크탱크의 이름을 나타내는 한자로 ‘원(源)’자가 사용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코틀러 : 그것은 자원(resource)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원과 연구의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목표이고, 이를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한자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홍 : 그러면 아시아 정책 핵심과 같이, 주요한 싱크탱크들의 각종 행사와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주는 기관은 더 없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주실만한 얘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코틀러 : 제가 알기로는, 저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이곳 디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실관계 정리’에 주력하는 기관에 대한 흥미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쉽게 운영이 지속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구요. 하여간 저는 이번 위안부 결의안 통과 운동의 전개과정에 함께 하면서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끔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일본 정부는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하지만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중국 정부의 ‘능수능란’한 외교 역량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아베 내각의 장관이 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자 그 직후 중국에서 “두 번째 중국인 위안부”가 확인되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 다음날 그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이건 하나의 메시지이죠. 더 이상 중국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마라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중국인 위안부 문제를 중국 정부 차원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자꾸만 일본이 자신들을 자극한다면 “중국인 위안부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나 저희 연구소는 분명 ‘주류’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정부 관료로 일해 본 적도 없으며, 일본 전문가로 초청되어 연설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출간했고, 또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 오고 있구요. 하지만 이런 제 자신의 ‘능력’과 워싱턴 디씨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에 있는 마이클 그린이나 맨스필드 재단의 골든 플레이크, 신안보전략연구소를 새로 설립한 커트 캠펠과 같은 이들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인물들이라 그들은 일본이나 아시아와 관련된 재원들은 상당부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명성(big name)’은 소속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의 현실입니다.

홍 : 오늘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틀러 : 저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